

혼재된 시·공간 속 내면의 자연을 만나다

박상화 초대전 '환상자연' 내달 30일까지 드영미술관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경들과 조우하며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드영미술관은 오는 7월30일까지 1, 2 전시실에서 박상화 특별 기획초대전 '환상자연(幻想自然, illusion nature)'을 개최한다. 광주 1세대 미디어아티스트인 박상화는 1990년대 말 사회적 거대 담론과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비판하는 영상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일상과 자연으로 시선을 옮겨왔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신선한 상상을 영상 속에서 구현하고,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현실에서 만나게 한다.



'사유의 정원'

(드영미술관 제공)

에서부터 길게 늘어뜨린 여러 겹의 메시 스크린 위로 가상자연이 투사된다.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심 풍경으로 시작해 무등산과 그 주변 정경 등 변화무쌍한 자연 개성을 담아냈다.

작가가 직접 채집한 소리와 이미지는 관람객들의 몰입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스크린 사이를 통과하는 경험은 자연에 동화되게 해 잠시나마 쉼을 얻게 하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동경하게 한다.

2전시실의 '공중비디오 정원'은 맵핑 기법을 통해 가상의 디지털 자연을 연출한다. 이 작품은 관람자들의 개입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작가 개인적

공상이 모티브가 된 비디오 조각 시리즈 '이너드림 하우스'와 '도원경', 'fall'은 작가의 상상력과 독창성이 결합돼 유일무이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있다.

확일화된 빌딩 숲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함과 여유를 체험하게 한다.

김수정 드영미술관 학예실장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 태초 자연으로의 회복을 위해 예술가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향한 예술적 실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박상화의 환상자연을 거닐며 풍경이 가진 미감과 무언의 소통을 하고 정서적 공감



'Fall'

(드영미술관 제공)

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빛고를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야외공연장

광주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음악회

23일 G.MAP야외공연장

광주경실련 창립 33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기원을 위해 광주경실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 뮤직스페이스공감이 주관하는 행사로 시민들에게 한여름 밤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팝페라 가수 박원, 하모니카 연주자 백주영, 라틴 가요 박수아, 감성가요 듀엣 김태훈&안혜경, 통기타 연주자 문은주, 요들송 가수 장미정이며, 특별출연으로 광주경실련 회원인 김순재와 청년밴드 짝공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실련 사무처(062-528-4851)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오는 23일부터 두번째 회원전을 여는 '목포 아트70' 회원들.

목포 Art70, 목포를 이야기하다

'목포 Art70' 회원전...23-29일 오거리문화센터

1970년대 목포시에 최초로 설립된 목포미술학원 출신 작가들이 만든 '목포 Art70'전이 오는 23-29일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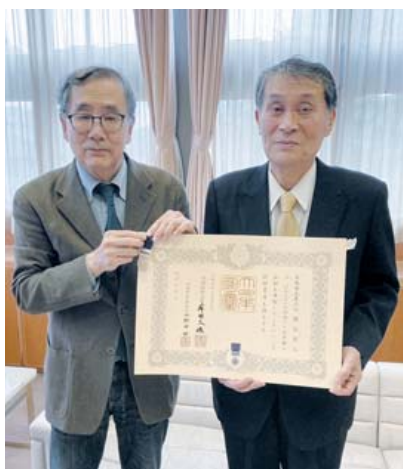
전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작가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묻어낸 목포 story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목포 Art70은 지역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의 시발점인 목포 출신 작가 중 지역 안팎에서 독

자적인 화풍으로 왕성히 활동하며 여러 장르에서 미술계를 빛내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됐으며 김암기 오마주 전시회를 계기로 창립했다.

이번 전시는 두 번째 회원전으로 예방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독창적인 표현양식과 기법 등이 융합된 다양한 장르로 목포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고자 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지난 9일 일본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 관장실에서 하정웅 명예관장의 감수포장 수여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타테타타 아키라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하정웅 시립미술관 명예관장, 日 감수포장 수상

재일작가 작품 179점 기증...공익 위한 고액 기부자에 수여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최근 일본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에서 고액기부자에게 수여되는 영예의 감수포장(緋綬褒章, 콘주호쇼)을 받았다.

감수포장은 공익을 위해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에게 일본 정부가 주는 감사 리본의 기장으로, 공익을 위해 사재(개인 500만엔 이상, 법인 등 1천만엔 이상)를 기부한 자에게 수여된다.

하 명예관장은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에 미술작품을 기증한 공적을 인

정받아 이상을 받게 됐다.

그는 2021년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에 미술작품을 기증했다. 기증작은 재일디아스포라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손아유 판화 57점, 드로잉 119점, 판넬존 판화 1점, 문승근 판화1점 등 총 179점이다. 재일디아스포라 작가 작품이 일본 공립미술관에 수장됨에 따라 이들의 존재가 기록되고 연구와 조명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정웅 명예관장은 "64년째 거주하며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미술작품을 기증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꿈꿔온 일이다"며 "재일교포나 한국 조선인이 일본에서 활약하며 글로벌 사회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정웅 명예관장은 1980년대부터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국립고궁박물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과 일본 교토시립미술관, 센보쿠시립 카쿠노다테마치 히라후쿠 기념미술관 등에 1만2천여점의 미술작품과 중요자료를 기증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어서오세요! 여기는 남광주시장입니다.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별교,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파란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